

사할린주
사회정치신문

Общественно-
политическая газет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새고려신문

СЭ КОРЁ СИНМУН (НОВАЯ КОРЕЙСКАЯ ГАЗЕТА)

2026년 2월 13일 (금)
(음력 12월 26일)
Пятница
13 февраля 2026 г.
№ 6 (12173)
1949년 6월 1일 창간
Цена свободная

2월 17일은 음력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 음력설 행사에서.

(이예식 기자 사진첩에서)

단신

사할린동포 지원 특별법 개정안, 국회 본회 통과

2월 12일 저녁 사할린 한인들에게 매우 반가운 소식이 전해졌다. 사할린한인들이 오랫동안 기다리던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일부 개정법안이 한국 국회 본회에 상정돼 회의 결과 국회의원 158개의 찬표를 얻어 만장일치로 통과되었다.

2025년 5월 30일 이 법률안을 국회에서 대표 발의한 양문석 국회의원은 "지난 5월, 제가 대표 발의한 개정안이 너무 늦지 않게 가결되어 참 다행입니다. 기다려주신 동포분들과 함께해주시는 의원님들께 감사합니다. 조국으로 돌아오실 동포 여러분, 대한민국은 국민을 결코 잊지 않습니다. 환영합니다."라며 소회를 전했다.

개정 특별법은 정부이송과 공포 단계가 남았다.

사할린 장병들에게 14톤의 인도적 위문품과 개인 소포 전달

사할린주가 특수군사작전 지역에서 복무하고 있는 사할린 장병들에 대한 지원을 계속하고 있는 가운데 조국수호자의 날을 맞아 특수군사작전 지역의 사할린 장병들에게 14톤에 달하는 2000개 이상의 위문품을 전달했다.

사할린과 쿠릴열도의 주민들은 사할린의 자원봉사자들이 짠 위장조물도 포함해 겨울철 의류, 군복, 의약품 동결건조식품을 비롯해 차량 타이어, 난로 등 부피가 큰 물품까지 특수군사작전지역에 정기적으로 전달하고, 또한 사할린 장병들에게 가족들이 보내는 편지, 동포들이 보내는 인사, 학생들이 보내는 엽서 등 군부대 우편물을 전달하고 있다. 사할린주 <소프리차스노스치(동참)> 기획이 2022년부터 왈레리 리마렌코 주지사의 주도로 시행된 이래 사할린주의 주민들은 도내츠크인민공화국으로 920톤이 넘는 물품을 보냈고, 사할린주와 자매도시인 사흐초르스크에는 위문센터가 문을 열었다.

<근로는 멋지다>포럼 사할린에서 개최

2월 17일(화) 유즈노사할린스크 '러시아는 나의 역사' 역사기념박물관에서 <근로는 멋지다>취업 포럼이 개최된다. 이에 학생들과 대학생 1000여 명이 참가할 예정이며 이들을 위해 직업진로지도를 비롯해 이력서 작성법과 자기소개를 위한 활동교실, 여름철 채용안내, 직업견습에 따른 박람회도 열린다. 이 행사는 <청소년과 아동> 국민기획의 일환으로 진행된다.

쿠릴열도 투자 특혜조건, 실효성 입증

유리 트루트네브 부총리 겸 극동연방관구 대통령 전권대표가 투자유치 진행 상황을 보고한 가운데 두 개의 특혜지원제도의 일환으로 55개의 투자기획 시행을 위해 체결된 협약의 투자총액은 380억 루블리에 달하고, 1,900개의 일자리가 창출되었다.

투자기획의 주요 부분은 쿠릴열도의 관광제한시설 구축을 위한 것이며, 정보통신기술(IT)과 건설 분야와 관련해서도 투자기획이 진행 중이다.

유리 트루트네브 부총리는 "이투루프섬과 쿠나쉬르섬에는 현대식 호텔단지가 들어서고, 북부 쿠릴에는 해상 관광코스가 개설되고 있으며, 복합 화물운송이 원활히 이뤄지고 있고, 조만간 또 하나의 호텔을 완공하고, 시코탄섬에는 대규모 관광단지 건설이 시작된다."고 보고했다. 새로운 호텔 건설과 여행사, 크루즈선의 등장으로 쿠릴열도를 향한 관광객의 유입도 크

게 촉진되고 있다. 2025년에는 쿠릴열도에 5만8천여 명이 방문했는데 이는 전년 대비 2배에 달한다. 투자현황은 계속 성장세로 2025년에 15개의 기업이 '쿠릴'선도개발구역 개발권을 얻었고, 올 1월에는 3개 기업이 합류해 개발하게 된다.

또한 역사적 유산 보존을 위해서 숲수림에서는 1945년 8월 1일에 쿠릴열도 상륙작전을 기릴 박물관 건축이 한창이다. 당시 8,800명의 소련 공수부대의 상륙작전으로 수적으로 우세했던 관동군을 격파해 제 2차 세계대전에 마침표를 찍었다.

지역 역사기념관 및 군예국 캠프는 푸틴 대통령의 주도로 운영되고 있다.

미하일 미슈틴 총리는 쿠릴열도의 전통적 어업뿐만 아니라 관광산업 발전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러시아 관광객들을 위한 지역의 매력과 새로운 투자유치를 위해 기업들과의 적극적인 협상을 지속하길 촉구했다.

유즈노사할린스크 공항에 신규 화물터미널 건설

'사할린' 선도개발구역 참가 기업인 '아어로포르트-서비스' 회사가 유즈노사할린스크 공항에 새로운 화물터미널을 건설할 예정이다. 극동지역 및 북극개발공사와 협약에 따른 투자자의 투입액은 14억 루블리에 달하고, 향후 34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전망이며, 2027년부터 화물터미널은 첫 화물을 처리하기 시작할 예정이다.

현재 공항의 제반시설은 약 1만 8천 톤의 화물을 처리할 수 있는데 새로운 터미널 건설로 2030년에는 화물 흐름을 2만 6천 톤으로, 2040년까지는 3만 5천 톤까지 증가시킬 수 있게 된다.

새 화물터미널의 가동은 화물처리 기간을 단축하고, 비용을 절감하여 관련 경제 부문의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 예상된다.

화물터미널 건설기획은 이미 투자자들과 유리 트루트네브 러시아 부총리 겸 대통령 극동 연방관구 전권대표와 회의에서 논의된 바 있다.

현재 '사할린' 선도개발지역 내에서 93개 참가 기업들이 자사의 기획들을 실행하고 있다. 사할린 지역 경제에 투입된 투자 규모는 계획된 2,300억 루블리 중 500억 루블리에 달한다.

선도개발지역 참가 기업들에게는 다양한 세제 혜택과 우대 조치가 제공되는데 그중 첫 3년-5년 동안의 토지세 면제, 첫 5년간 재산세 및 법인세 면제, 기획 실행 6년 차부터 10년차까지의 해당 세급에 대한 세율 감면, 그리고 토지 제공, 제반시설 및 기타 유형의 지원을 제공한다.

새고려신문 2026년 상반기 신문 구독 계속!

존경하는 독자 여러분! 2026년 상반기 새고려신문 구독신청을 계속 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1개월 구독료는 147,66 루블리입니다. 신문 인덱스는 ПР575입니다. 신문은 주내 모든 우체국에서 구독할 수 있습니다.

사할린 지역 주민들의 아이디어 실현에 주정부 예산에서 1억8000만 루블리 배정

사할린주 정부가 2026년 참여형 예산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실행할 기획 목록을 선정했다. 지역 주민들이 제안하는 41개의 아이디어를 생활에 실현시키기 위해 1억8,400만루블리 이상이 배정된다.

참여형 예산은 실제로 사할린주에서 공고히 자리잡은 제도로서 이러한 제도를 통해 주민 투표와 제안을 토대로 자금이 배정된다.

적극적인 사회의 대표들은 여러모로 지역 차원의 기획들에 대한 아이디어들을 추진하고 있다. 가장 많은 아이디어는 마을 도로수리, 휴식 구역 조성, 수도관 문제 해결, 거리 조명등 설치 등 이와 유사한 가장 기본적인 시설들이다. 사회의 지원을 받을 기획은 심사를 위해 지역 재정부에 제출되고, 기획 승인을 얻으면 주정부가 기획 실행을 위해 자금을 배정한다.

참여형 예산시스템은 점점 인기를 얻고 있다. 이번 경연에 98개의 아이디어 기획이 제출되었는데 이는 기록적인 수치다. 단연코 코르사코브 지역이 기획 우승을 가장 많이 차지했다. 2026년에 코르사코브에는 11개의 기획들이 실행

될 예정이다. 사할린주 재정부 올라 로파티나 장관은 "사할린 주민들은 그들의 아이디어가 실현되고 있는 것을 보고 있다. 지방 자치단체에서 주민들은 변형 방식에 맞추어 해가 갈수록 단계적으로 보완하는 기획을 시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사할린주 재정부 열린 예산 분야의 예산정책국장인 안나 카자코와는 "아직도 주민들에게는 도로의 품질 향상과 사회적 공간의 재정이 중요하다. 29개의 기획들은 마을의 도로 수리이고, 주로 솔로비요카, 오조르스코예, 위스크레센스코예, 오노르, 오킴키 마을을 비롯해 여러 마을들에서 이런 사업들이 계획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이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페르워마이 스크 마을 입구에 작은 건축물 설치를 비롯해 여러 마을 등에 공공시설 개선에 대한 기획들이 실현되고 있다.

참여형 예산 편성 프로그램은 2017년부터 사할린주에서 성공적으로 시행되어왔다. 그 기간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제안한 400여 개의 기획들이 지역 예산 지원을 통해 실현되었다.

(주정부 자료에서)

2월 17일은 음력설

사할린 한인단체들, 설날행사 준비 중

2월 17일은 음력설이다. 러시아에서는 공휴일이 아니지만, 사할린의 거의 모든 한인 단체들은 설날 전통을 계승하기 위해 사람들을 모아 행사를 개최한다.

올해 한인단체 대부분이 2월 14일(토요일)에 행사를 개최하기로 했다.

이날 유즈노사할린스크에서는 다음과 같은 행사들이 열린다:

정오 12시에는 유즈노사할린스크시한인회(회장 림중환)는 시한인회가 운영하는 노인정에서 노인정 어르신들을 모시고 명절행사를 연다. 이번엔 어르신들을 위해 명절밥상과 축하 공연을 준비하고 있다. 한편 노인정 모임은 매일 2번 진행되고 있다. 어르신들이 따뜻한 분위기 속에서 다정한 정과 즐거움을 나눌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사할린주한인협회(회장 박순옥)에서 음력설 맞이 행사는 오후 3시 사할린 한인문화센터에서 열린다. 행사에는 사할린한인 1세, 사회적 활동가 및 공식기관 대표들을 초대한다. 200명의 참가자들을 위해 풍성한 만찬이 마련되며, 한인문화센터 소속 예술단체, '에트노스'학교 학생 등의 명절축하공연이 펼쳐진다. 또한 주 한인회의 지방대표자들도 주 한인회 지원을 받아 음력행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단체 관계자가 전했다. 코르사코브 한인회 경우 주 한인협회와 같은 날, 2월 14일 음력행사를 진행한다.

사할린한인연합회(회장 고영순)의 음력 행사는 오후 5시에 연합회 소속 '클럽45-47(1945-1947년 생 회원 의미함)'이 기획하고 있다. 행사는 연합회

가 사무실용 및 행사장으로 임대하는 가라즈나야 2a번지에 위치한 건물에서 진행된다. 연합회 회원을 대상으로 하며, 90명 이상이 참석할 예정이다. 늘 흥겹고 정겨운 분위기로 호평을 받아 참여 희망자가 많지만 수용 공간의 문제로 인원이 제한되었다고 단체 측이 전했다. 사할린한인연합회의 네델스크 구역 지부는 2월 14일, 위스토크 부락 지부는 음력설날인 2월 17일 명절행사를 지내기로 했다.

'사할린한인'유즈노사할린스크시한인회 (회장 천영근)는 해마다 레스토랑에서 음력설 맞이 행사를 열어 많은 동포 및 지인들과 정을 나눈다. 올해는 유즈노사할린스크 '클래식'레스토랑에서 오후 6시에 모이기로 했다. 게임, 경품 추첨, 노래, 춤, 다양한 이벤트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농담과 웃음, 깜짝 이벤트가 가득한 시간이 될 전망이다.

세계한민족여성네트워크(KOWIN) 러시아 사할린 지역회(지역장 최금순)는 사할린한국교육원과 공동으로 오는 2월 21일 정오 12시 사할린한인문화센터 대강당에서 '설날: 선조들의 놀이' 축제를 개최한다. 이날 음력설은 가정적 명절로서 가족단위의 참가자들은 제기차기, 투호, 비석치기, 공기놀이 등 다양한 전통놀이에서 실력을 겨룰 예정이다. 현재 온라인 사전 접수가 진행 중이다.

최금순 지역장은 "한민족의 전통을 잊지 않고 무엇보다 함께 화합과 기쁨의 따뜻한 분위기를 만들어 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배순신 기자)

이모저모

<노래하는 박물관> 기획 일환, 사할린에서 시적 대결 진행

2월 5일(목) 유즈노사할린스크 주 미술박물관에서 시와 음악과 패션을 결합한 <노래하는 박물관. 제 2장> 창작 잔치가 열렸다.

주요 행사로 사할린의 두 시인 폴리나 세멘치크와 알렉산드르 그린코의 시낭송 대결이었다.

두 시인은 창작한 시를 직접 낭독하기도 하고 야로슬라브나 칼라쉬니코와 아티스트와 게오르기 루만체브 아티스트도 그들의 시를 낭독했다. 이 대결이 투표를 통해 나타난 결과 폴리나 세멘치크가 우승했다.

야로슬라브나 칼라쉬니코와 기획 예술감독은 "이 기획의 일환으로 낭독된 모든 시들은 현재 편찬 및 출판 준비 중인 '사할린 시 모음집'에 수록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행사 문화 프로그램의 한 부분으로서 패션에 대한 토론과 함께 사할린 지역 브랜드 '사할린 - 러시아의 등대'와의 협력 패션쇼가 진행되었다. 음악 행사로는 사할린 필하모니 오케스트라 소속 연주자인 예브게니야 타그웨이(로알 피아노), 미하일 월로흐(플룻, 두둑)의 연주가 이어졌고, 특히 알렉산드르 루만체브의 콘트라베이스 연주는 관객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На Сахалине прошла поэтическая дуэль в рамках проекта «Поющий музей»

В четверг, 5 февраля,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в областном художественном музее провели творческий вечер «Поющий музей. Глава вторая», объединивший поэзию, музыку и моду.

Центральным событием стала поэтическая дуэль двух сахалинских авторов — Полины Семенчик и Александра Гринько. Их стихи прозвучали как в авторском исполнении, так и в прочтении артистов Ярославны Калашниковой и Георгия Румянцева. По итогам голосования победу одержала Полина Семенчик. «Все прозвучавшие в рамках проекта произведения войдут в Альманах сахалинской поэзии, который сейчас формируется и готовится к выпуску», — сообщила художественный руководитель проекта Ярославна Калашникова.

В программу также вошел разговор о моде как части культуры и совместный показ с местным брендом

«Сахалин — маяк России». Музыкальное сопровождение вечера обеспечили артисты Сахалинской филармонии Евгения Тагвей (рояль) и Михаил Волох (флейта, дудук). Особое впечатление на публику произвело выступление баса Александра Румянцева.

'과학주간'의 일환, 사할린에서 무인기 기술에 따른 활동교실 개최

사할린주는 과학주간을 맞아 그 일환으로 두 번째 진로지도 프로그램으로서 <드로노마니아> 무인기 기술에 따른 활동교실을 열었다.

수업은 자율적 비영리기관인 '사할린의 날개'과학·생산센터'를 중심으로 진행됐다.

활동교실에 학생들이 참여해 이들에게 최신 무인 항공기에 대해 설명해주었고,

참가 학생들은 드론이 어떻게 설계되어 있는지, 어떤 식으로 작동하는지, 과학을 비롯한 산업과 다른 어떤 분야에서 적용하는지에 대해 배울 수 있었다.

과학·생산센터 전문가들의 지도 아래 학생들은 기본적인 무인기 운영 기술을 익히고, 주요 프로그램을 배우며, 안전한 조건에서 무인기 조정 연습을 해보기도 했다.

<사할린의 날개> 사할린 과학·생산센터는 이러한 행사들이 청소년들의 과학적 기술개발과 사할린 지역을 위한 미래의 전문가 양성을 위한 활동이라고 밝혔다.

На Сахалине в рамках Недели науки прошел мастер-класс по беспилотным технологиям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в рамках Недели науки состоялось второе мероприятие профориентационной программы — мастер-класс по беспилотным технологиям «Дрономания».

Занятие прошло на базе автономной некоммерческой организации «Научно-производственный центр „Крылья Сахалина“». В мастер-классе приняли участие школьники, которым рассказали о современных беспилотных летательных аппаратах.

Участники узнали, как устроены беспилотники, по каким принципам они работают и где их применяют: в науке, промышленности и других сферах. Отдельный блок программы посвятили практическим занятиям.

Под руководством специалистов центра ребята освоили базовые навыки управления БПЛА, познакомились с основами программирования и отработали элементы пилотирования в безопасных условиях.

В НПЦ «Крылья Сахалина» сообщили, что такие

мероприятия входят в работу по развитию научно-технических направлений среди молодежи и подготовке будущих специалистов для региона.

사할린주 도서관, 사할린 주거지역들의 역사에 대한 문헌 목록집 발표

사할린주 일반 과학도서관이 사할린주 <주거지역들의 역사>에 대한 새로운 문헌 목록집을 선보였다. 이 새로운 문헌 목록집을 통해 사할린 주민들은 자신의 고향과 마을, 촌락의 역사에 대해 알아볼 수 있게 되었다. 이 문헌에는 19세기부터 2025년까지 아직 지도에 표시되지 않은 사할린주 모든 주거지역들에 대한 실제 오래된 기록물들까지도 포함하고 있다.

이 목록집은 사할린주의 구석진 지역들을 주제로 사할린 작가들이 쓴 책들을 통합하여 사할린주 일반 과학도서관 향토과와 사할린 각 지역 사서들의 지원 속에 통합 목록으로 정리되었다. 현재 이 문헌은 도서관 웹사이트를 통해서만 이용이 가능하며, 추후 책으로 발간할 계획이다. 주 도서관의 직원들은 동료들과 고문서 연구원들에게 색인 목록에 추가하기 위해 주거지역에 대한 새로운 자료를 보내어 목록 확장 작업을 지속해주길 당부했다.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ной библиотеке представили сборник об истории населенных пунктов

Областная научная библиотека представила новый сборник — библиографический указатель п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История населенных пунктов». С помощью него жители островного региона смогут узнать об истории своего родного города, села или деревни. В сборник вошли архивные записи практически обо всех населенных пунктах области с XIX века по июль 2025 года, в том числе тех, которых уже нет на карте.

Сборник объединяет книги сахалинских авторов, посвященные отдельным районам области. При поддержке краеведческого отдела ОУНБ и библиотекарей из разных уголков региона эти произведения собрали в единый каталог. Сейчас указатель доступен только в электронном формате на сайте библиотеки. В перспективе издание планируют выпустить в печатном виде.

Работники областной библиотеки призывают коллег и работников архивов продолжить работу и присылать новые данные о населенных пунктах, чтобы дополнить указатель.

(8면에 계속)

블라디보스토크, 제22기 러시아 동부협의회 출범식

자문 위촉장 · 고려인 고문 임명장 수여식 및 신년 하례식 진행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이하 민주평통) 러시아 동부협의회(회장 이상수)는 지난 2월 8일(일) 오후 5시 30분 블라디보스토크 롯데호텔에서 민주평통 자문위원 위촉장과 고려인 고문 임명장 수여식 및 신년하례식을 진행했다. 행사에 마가단, 이르쿠츠크, 옴스크, 하바롭스크, 사할린을 비롯해 블라디보스토크와 연해주 여러 지역에서 온 50여 명이 참석했다.

'전쟁 걱정 없는 한반도', '평화 공존의 새 시대', 그리고 '남북 공동성장'이라는 대북정책의 명확한 세 가지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는 구성원들 간의 상호 공감대를 형성하는 시간이었다.

이날 행사에 러시아 동부협의회 고문위원 및 자문위원들과 블라디보스토크 총영사 대행 송희진 영사가 참석한 가운데 축사를 통해 평화통일의 불씨가 꺼지지 않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했다. 러시아 동부협의회 이상수 신임회장은 취임사에서 "동부협의회는 한반도의 평화 공존을 앞당기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며, 연해주에서부터 그 시작을 위해 각자의 역할을 충실히 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날 송희진 총영사 대행과 러시아 동부협의회 이상수 회장이 참석한 각 자문위원에게 이재명 대통령으로부터 위촉장, 러시아 동부협의회 회장으로부터 고문들에게 임



명장을 수여했다. 참석한 고문위원 및 자문위원에게는 이번 출범식을 통해 한반도 평화통일을 향한 모두의 뜻이 한결을 다가가는 길이 되는 뜻깊은 행사로 마무리되었다.

한편, 제22기 민주평통 러시아 동부협의회는 자문위원 24명, 고려인 고문 28명으로 구성되었다고 전해졌다.

이번 출범식에서 사할린주를 대표해 사할린주한인협회 박순옥 회장, 사할린한인연합회 박 블라디미르 운영위원, 새고려신문사 배 빅토리아 대표가 참석했다.

(본사 기자) (사진: 민주평통 러시아 동부협의회 제공)

[동포의 창] 다카하라 · 유라 · 박승의... 세 개의 이름에 국적도 6번 바뀐다

파주시할린영주귀국자협회장 "사할린 한인의 이산은 아직 진행형" "50년간 잊었지만 정체성 지켜와... 한인 후손 영주귀국길 열어줘야"

(파주=연합뉴스) 강성철 기자 = "2차대전 패망 후 일본은 사할린에 강제 징용된 조선인들을 내팽개치듯 외면했습니다. 냉전 시대에 남겨진 한인들은 조국과 자유 왕래는 고사하고 서신 왕래도 못 하며 50여년간 일가친척과의 상봉을 그리다 일부는 차디찬 사할린 땅속에 묻혔죠. 이 비극이 이제는 끝나나 싶었는데 영주귀국의 제한으로 후손들과 이산의 아픔을 겪고 있으니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소재 문산도서관에서는 '세 개의 이름, 하나의 삶'이라는 제목의 전시회가 열리고 있다.

사할린에서 영주귀국해 파주에 정착한 파주시할린영주귀국자협회의 박승의(84) 회장의 생애 기록과 개인 소장 자료를 통해 사할린에서의 삶과 영주귀국 이후의 시간을 조명하는 전시다.

박 회장은 7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디아스포라의 삶을 사는 사할린 한인의 이산은 아직도 진행형"이라며 "모국이 이들을

적극적으로 포용하는 정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사할린 동포는 일제강점기 강제 동원돼 고통을 겪었고 1945년 해방 이후에도 냉전체제가 지속해 잊힌 존재로 살다가 1991년 러시아와 수교로 인해 한국 방문길이 열렸다.

고국을 그리워하던 동포 1세대들은 한일 양국 적십자의 도움으로 영주귀국 길에 올랐으나, 1945년 8월 15일 이전 출생자로 제한돼 자손과 떨어져 살아야 하는 이산의 아픔이 이어졌다.

국회는 2020년 특별법을 마련했으나 영주귀국 대상자를 본인 외에 배우자 또는 동반 가족(직계비속) 1명과 그 배우자로 확대하는 데 그쳤고, 2024년에 추가 개정을 통해 자녀와 배우자 전체로 확대했다.

문제는 사망으로 자녀가 없는 경우 직계비속(손자) 1명과 배우자로 제한한 점이다.

사할린 한인 사회는 4세대를 넘어 5세대까지 나오고 있어서 2



박승의 파주시 사할린영주귀국자협회장 (서울=연합뉴스) 강성철 기자 = 파주시 문산읍 문산도서관에서 '세 개의 이름, 하나의 삶'이란 주제의 전시회의 주인공인 박승의 파주시 사할린영주귀국자협회 회장. 2026.2.7 wakaru@yna.co.kr

세의 경우도 대부분 환갑을 넘은 지가 오래다. 영주귀국하려면 손주 등 후손들과 생이별해야 하는 상황이라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

(7면에 계속)

전국 소수민족언어 받아쓰기대회, 2월 16일에 시작

북방, 시베리아 극동 등 지역에서 온 소수민족원주민 수천 명이 40개의 언어와 방언으로 받아쓰기대회에 참가한다. 2월 16일부터 25일까지 러시아 전역에서 대규모 교육-계몽 행사로 소수민족 원주민어 받아쓰기 대회가 대대적으로 시작되는 가운데 러시아 민족통합의 해를 기념하여 세계 모국어의 날을 맞아 개최된다.

이 행사는 국내 언어유산에 대한 관심을 모으고, 소수민족원주민의 문학창작에 대한 지속적 관심을 유도하며, 러시아 연방의 다양한 고유언어를 보존하기 위함이다.

매해 열리는 이 행사에 전국 각지에 소수민족 수천 명이 참가하는 이 행사에서는 40개 이상의 다양한 언어와 방언을 다루며, 행사 개막식은 2월 16일 상트페테르부르크에 있는 러시아 국립 게르첸 사범대학에서 열린다. 이로써 시베리아와 극동, 북극, 모스크바와 상트페테르부르크 지역들에서 소수민족원주민이 사용하는 다양한 언어 보존과 증진을 향한 길이 시작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한국 국가보훈부 독립유공자는 노령 계열 175명이며 그중 후손 확인을 기다리는 독립유공자 137명이다.

김 미하일 미하일로비치

관리번호	951373
성명	김미하일 미하일로비치
이명	없음
생년월일(1896)	사망년월일 1938-05-25
본적	외국 러시아 露領 沿海州 地新墟 (노령 연해주 지신하)

공훈록

김 미하일은 1920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김진(金震),장두정(張斗正,張道定) 등과 함께 항일독립을 목적으로 혁명주의의 일세당(一世黨)을 조직하고 러시아 혁명군사령부의 승인을 얻어 조선인혁명군을 편성하였다. 조선인혁명군은 기

광복 80주년 맞아

후손 확인을 기다리는 러시아지역 독립유공자

관총,소총 및 폭탄 등 무기와 피복을 러시아군으로부터 공급받고 당원 약 2백명, 의용병 지원자 80명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1920년 2월 23일, 블라디보스토크의 대한국민의회(大韓國民議會)가 중심이 되어 각 독립운동단체 대표자회를 열고 독립선언기념회 거행에 관해 협의하였는데, 이때 독립선언기념회의 접대부장(接待部長)에 선임되었다. 1920년 3월 14일 블라디보스토크 신한촌(新韓村) 정교사원(正敎寺院)에서 열린 한인사회당 중앙총회에서 부회장에 선임되었다. 1924년 3월경 고려공산당 창립대회 준비위원회(

오르그부)가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소집되었을 때, 그 준비위원회의 선전부원이 되었다. 그 후 연해주 노보예쿠스꼬에 구역 당서기 등을 역임했다. 1926년 3월 17일, 제5회 고려공산당 야체이카 회의가 블라디보스토크에서 개최될 때, 고려공산당원 지도원으로 참가하였다. 1926년 4월 14일부터 3일간에 걸쳐 연해도(沿海道) 집행위원회에서 고려부협의회(高麗部協議會)를 개최할 때, 연해도집행위원회 고려위원으로 참가하였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10년에 건국

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해외의 한국독립운동사료(x ix) (국가보훈처) 日本篇(6) 283면
- 조선소요사건관계서류 (3) (5)
- 검찰행정사무에 관한 기록(국사편찬위원회) (2)
- 한국사회주의운동인명사전(강만길 외, 1996) 71면
- 독립운동사자료집(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제10집 366~367면
- 不逞團關係雜件-朝鮮人の部-鮮人と過激派(국사편찬위원회) (1) (6)

묘소

서울현충원(위패)

(편집 이철수)

사할린주, <전문가들> 전 러시아 선수권대회 지역 예선 시작

전 러시아 <전문가들> 선수권 대회의 지역 예선이 사할린 지역에서 시작되었다.

2월 1일부터 28일까지 사할린 주에서는 학교 학생 및 대학생을 대상으로 대규모 전문가 기술 경진대회가 개최되어 이번 대회에 사할린주 전역에서 500명이 넘는 참가자와 70명의 지도자들이 참가한다. 참가자들은 3월 30일부터 4월 30일까지 열리는 결선(지역간) 대회에서 사할린 지역 대표로 출전할 자격을 얻기 위해 경쟁한다.

올해 대회는 유즈노사할린스크, 돌린스크, 포모나이스크, 흠스크, 사흐쵸르스크, 알렉산드롭스크-사할린스키 등 사할린주의 여러 도시에 위치한 20개 주요 교육기관에서 진행된다. 본 대회 지역 예선에서 경쟁할 전문 분야는 건설 및 주택·공공시설, 의료 및 사회

복지, 정보기술 및 디자인, 제조업, 창업, 정보보안, 음향 엔지니어링, 운송, 물류 등 85개의 가장 수요가 높은 분야들에서 경쟁을 치르며, 참가 부문은 대학생 '기초' 부문과 14세 이상 청소년 '주니어' 부문으로 나뉜다. 경험이 풍부한 전문 도우미들이 모든 단계에서 참가자들을 지도할 예정이다.

지역 예선의 일환으로 경기 외에도 기업 대표들이 참여하는 원탁토론, 전략 및 프로젝트 교육일정 및 토론, 학생들을 위한 직무 분야와 수요가 많은 직업을 소개하는 진로 탐색 행사 등 비즈니스 프로그램이 진행될 예정이다.

<전문가들> 선수권대회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주도하는 '청소년과 아이들' 국가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실시되고 있다.

О диаспоре, и не только

Срочно в номер

Приняты поправки в Спецзакон «О поддержке сахалинских соотечественников»

Радостная весть облетела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вечером 12 февраля.

12 февраля 2026 года состоялось пленарное заседание Национального собрания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на котором был принят Законопроект о внесении поправок в Специальный закон «О поддержке сахалинских соотечественников», инициированный группой депутатов во главе с депутатом Ян Мун Сок 30 мая 2025 г. Законопроект был принят единогласно. За него проголосовали 158 присутствующих на заседании депутатов.

Поправки включают в себя расширение круга получателей поддержки по програм-

ме возвращения на историческую родину. Теперь право на возвращение в Корею с целью постоянного проживания распространяется также на супругу(а) и детей уже умершего сахалинского корейца (до 15 августа 1945 г.р.), а также на супругов этих детей.

Закон вступит в силу через полгода после официального опубликования.

Данное решение стало результатом многолетних обращений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и общественных организаций, поднимавших вопрос восстановления права возвращения на историческую родину.

Виктория Бя

Королевский подарок в праздничные дни

Сеул, 10 февраля – ИА РУСКОР. По случаю Соллаль, корейского Нового года по лунному календарю, четыре главных дворца страны в Сеуле — Кёнбоккун, Токсугун, Чхангёнгун и Чхандоккун, а также храм Чонмё и королевские гробницы — с 14 по 18 февраля будут открыты для бесплатного посещения, сообщила Служба культурного наследия Кореи. В праздничные дни посетители Кёнбоккуна могут получить

особый подарок. С 16 по 18 февраля на площади Хыннёмун у главных ворот дворца будет проходить мероприятие Sehwa Sharing. Сэхва — это картины, которые должны принести удачу в новом году. На мероприятии после церемонии смены королевской гвардии, которая воспроизводит смену караула у дворцовых ворот в 10:00 и 14:00, будут розданы 6000 печатных картин на тему «Красный конь зодиака».

BTS возвращается, аншлаги гарантированы

Сеул, 11 февраля – ИА РУСКОР. Билеты на предстоящий мировой тур южнокорейской поп-группы BTS полностью распроданы в Северной Америке и Европе, сообщило агентство группы BigHit Music. По данным агентства, билеты на 41 концерт в этих регионах были быстро раскуплены сразу после поступления в продажу, что свидетельствует о невероятном интересе фанатов по всему миру к возвращению BTS. Турне «Aigang», которое станет крупнейшим в истории К-поп, начнется 9 апреля в спортивном комплексе Коян недалеко от Сеула. По словам представителей BigHit, мировое турне пройдет в 34 городах и будет включать 79 концертов, а также сцену с обзором на 360 градусов, чтобы фанаты могли полностью погрузиться в атмосферу. Североамериканский этап тура

начнется 25 апреля на стадионе «Рэймонд Джеймс» в Тампе, штат Флорида. Группа выступит в 12 городах Северной Америки, а затем отправится в Европу, где даст 10 концертов в пяти городах. По данным агентства, из-за огромного спроса были запланированы дополнительные выступления в Тампе, Стэнфорде и Лас-Вегасе.

В преддверии мирового турне группа из семи человек выпустит свой пятый студийный альбом «Aigang» 20 марта. Альбом из 14 треков станет первым с момента выхода «Proof» в июне 2022 года, а также первым релизом после того, как все участники прошли обязательную военную службу. По случаю выхода альбома BTS планируют провести концерт в честь возвращения на сцену 21 марта на площади Кванхвамун в центре Сеула.

Комплекс в Кэсоне: 10 лет тишины

Сеул, 11 февраля – ИА РУСКОР. Ассоциация южнокорейских компаний, ранее работавших в межкорейской промышленной зоне в Северной Корее, во вторник призвала правительство приложить усилия, чтобы владельцы бизнеса могли посетить ныне закрытый комплекс. Около 80 представителей 38 компаний-членов Корпоративной ассоциации промышленного комплекса Кэсон (CAGIC) обратились с этой просьбой на пресс-конференции, состоявшейся в отделе таможенного, иммиграционного и карантинного контроля (CIQ) на станции Дорасан в Паджу, к северу от Сеула. Ассоциация заявила, что ее члены надеются вернуться в Кэсонский промышленный комплекс, который был закрыт в течение последнего десятилетия, чтобы проверить свои активы. «Спустя десять лет после закрытия Кэсонского промышленного комплекса компании, которые там работали, оказались под угрозой. Мы хотим вернуться в Кэсон», — заявил журналистам председатель CAGIC Чо Гён Чжу.

Администрация Пак Кын Хе закрыла промышленный комплекс 10 февраля 2016

года в ответ на ядерные испытания и запуск ракет большой дальности в Северной Корее. В этом комплексе, запущенном в 2004 году как флагманский проект, символизирующий межкорейское экономическое сотрудничество и примирение, когда-то работали около 55 000 северокорейских сотрудников 120 южнокорейских компаний. Чо также призвал правительство США сыграть ответственную роль в организации визитов южнокорейских предпринимателей с целью защиты их активов в Кэсоне. «Подобно тому, как США недавно предоставили исключения из санкционного режима для оказания гуманитарной помощи в нескольких глобальных случаях, обсуждавшихся на заседаниях ООН, они должны четко дать понять, что визиты владельцев бизнеса для проверки своих активов в Кэсоне не подпадают под санкции», — сказал он. Обращаясь к Северной Корее, Чо заявил, что компании, работающие на территории комплекса, добросовестно ведут бизнес в соответствии с межкорейскими соглашениями, и призвал Пхеньян разрешить владельцам бизнеса посещать промышленную зону.

Корейцы Сахалина готовятся отметить СОЛЛАЛЬ

17 февраля наступит Соллаль — Новый год по лунному календарю. В России он не имеет статуса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го праздника, однако почти все корейские общественные организации Сахалина традиционно собирают людей, чтобы сохранить и передать обычаи предков.

Предлагаем вашему вниманию обзор основных мероприятий.

Подавляющее большинство организаций выбрали для празднования 14 февраля. В этот день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пройдут следующие мероприятия:

12.00 - Южно-сахалинская местная общественная организация корейцев (ЮСМООК), председатель Лим Ден Хван) проводит новогоднюю встречу Клуба пожилых людей. Для них накроют вкусный стол, подготовят праздничную программу. Клуб пожилых людей под патронатом ЮСМООК собирается в здании организации (ул. Южно-Сахалинская, 71) два раза в месяц. Здесь старшее поколение находит общение, тепло и уют.

15.00 – В актовом зале Корейского культурного центра г.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ККЦ, пр. Мира, 83а) представитель 1-го поколения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общественность и официальных лиц соберет **Региональная общественная организация «Сахалинские корейцы» (РООСК)**, президент Пак Сун Ок). Для участников накроют праздничный стол. В концертной программе примут участие творческие коллективы ККЦ, ДШИ «Этнос» и др. Ожидается, что праздничное мероприятие посетят около 200 чел. Вход по приглашениям.

В РООСК также сообщили, что оказали поддержку всем районным представителям по празднованию Нового года по лунному календарю на местах. В частности, в этот же день, 14-го февраля, отпразднуют Новый год в Корсакове. Остальные представительств планируют провести новогоднее мероприятие позже.

17.00 – Инициативу по проведению Новогоднего мероприятия взял на себя **Клуб 45-47** (люди 1945-1947 года рождения) при Ассоциации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АСК, председатель Ко Ен Сун).

Праздничный вечер состоится по ул. Гаражная, 2а, где АСК арендует помещение для офиса и проведения мероприятий. Вечер пройдет для членов АСК, ожидается более 90 человек. Так как здесь всегда весело и атмосферно, желающих было гораздо больше, но, к сожалению, размеры помещения не

позволяют вместить всех желающих, сообщили в организации. Отделение АСК в Невельске также проведет встречу Нового года по лунному календарю 14 февраля, а отделение п. Восток непосредственно в Соллаль – 17 февраля.

18.00 – Местная общественная организация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САХАЛИН ХАНИН» (МООСК ЮС) (Сахалин Ханин, председатель Чон Ен Гон) традиционно отмечает Новый год в ресторане, созвав многочисленных друзей и соратников. В этот раз гостей собирают в ресторане «Классик». Готовится большая праздничная программа с играми, конкурсами, танцами, розыгрышем лотереи. Гости ждут сюрпризы, шутки, веселье.



Сообщество корейских женщин KOWIN и Центр просвещения РК на Сахалине приглашают окунуться в атмосферу корейского Нового года по лунному календарю **21 февраля в 12.00**.

В этот день в актовом зале ККЦ (Мира 83а) состоится фестиваль традиционных корейских игр «СОЛЛАЛЬ: ИГРЫ ПРЕДКОВ». Это будут командные соревнования среди семей. В данный момент проходит онлайн-регистрация команд, которые попробуют себя в веселых играх: чегичаги, тухо, бисок чиги, конги нори и другие.

Региональный представитель сообщества корейских женщин Че Гым Сун подчеркнула: «Самое главное — мы вместе создадим теплую атмосферу единения и радости!»

Виктория Бя

В Южной Корее объединены визы H2 и F4 для этнических корейцев

С 12 февраля 2026 года в Республике Корея вступают в силу долгожданные изменения в визовый режим и порядок пребывания этнических корейцев с иностранным гражданством. Теперь визы для этнических корейцев H-2 и F-4 объединяются в единую визу для этнических корейцев (F-4). Прекращается выдача виз H-2 и виза F-4 становится единственной основной визой для этнических корейцев, сообщает Министерство юстиции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Действующие владельцы H-2 смогут самостоятельно до окончания срока пребывания подать заявление на смену статуса на F-4. После перехода они получат расширенные возможности трудоустройства и более длительные сроки проживания.

Одновременно расширяется пере-

чень профессий, разрешённых для обладателей визы F-4. В частности, разрешается работа в ряде сфер, ранее закрытых для этой категории, включая отдельные виды строительных работ, складскую логистику, упаковку продукции, обслуживание парковок, заправочные станции и другие направления, где наблюдается дефицит рабочей силы.

Правительство Южной Кореи также вводит стимулирующие меры для лиц с высоким уровнем корейского языка или активной социальной деятельностью (срок визы F4 в зависимости от этого будет выдаваться на срок от 1 до 3 лет), включая упрощённые условия при последующем переходе на статус постоянного проживания F-5.

(<https://f.me/saramkor>)

О Корее и корейцах

Президент РК встретился с лидерами политических партий

Президент РК Ли Чжэ Мён встретился 12 февраля в своей резиденции с лидерами основных политических партий, чтобы обсудить пути межпартийного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в экономике и других областях. Как сообщил журналистам глава администрации президента Кан Хун Сик, глава государства провёл встречу с лидером правящей Демократической партии Тобуро Чон Чхон Рэ и лидером ведущей оппозиционной партии Сила народа Чон Дон Хёком «открытое обсуждение государственных дел». В центре внимания - меры улучшения жизни населения и обеспечения стабильного управления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ми делами.

В прошлом году КНДР посетили почти 10 тысяч россиян

В 2025 году в Северной Корее побывали 9.985 граждан России. Об этом сообщил 9 февраля американский портал NK News со ссылкой на пограничное управление Федеральной службы безопасности России. Это максимальный показатель с 2010 года, когда началось ведение соответствующей статистики. Более половины россиян – 5.075 человек – посетили Северную Корею с целью туризма, 1.156 человек – в деловых целях. Между тем, по рабочим визам в Северную Корею въехали лишь пять россиян, а в рамках студенческого обмена – трое. 666 граждан России посещали родственников и друзей.

Создана рабочая группа по контролю за ценами

11 февраля в РК создана рабочая группа с участием министров, целью которой является контроль за потребительскими ценами и их стабилизация. Потребительские цены, ключевой показатель инфляции, в январе выросли на 2% по сравнению с аналогичным периодом прошлого года, частично благодаря стабильным ценам на нефтепродукты. «Хотя потребительские цены в январе достигли целевого показателя, совокупное влияние их роста за последние годы привело к тому, что население по-прежнему ощущает высокую нагрузку, связанную с ростом стоимости жизни», - заявил министр финансов и экономики Ку Юн Чхоль, выступая на первом заседании рабочей группы. Он подчеркнул, что правительство проведёт интенсивные проверки цен на товары первой необходимости, включая продукты питания.

СК обвинила Японию в создании военных союзов

Япония, которая является военным преступником, не должна заключать военные союзы с зарубежными странами. Об этом пишет 11 февраля главная северокорейская газета «Нодон синмун», напоминая о том, что Япония активизировала торговлю военной техникой с Канадой. Газета обвинила Японию в «создании благоприятной среды для реализации своих амбиций по вторжению за рубеж путём усиления военного сговора с мировыми державами». Подписание военных соглашений, обмен военной техникой и информацией, а также проведение совместных военных учений между странами возможны только при наличии военных союзов. В этой связи «не будет преувеличением сказать, что Япония фактически заключила военные союзы с членами НАТО и многими другими странами», - пишет «Нодон синмун». Как страна, совершившая военные преступления, Япония не имеет права на собственную армию, поэтому установление военных союзов является «красной линией, которую нельзя переступать», - отмечается в статье.

Более 27 млн корейцев совершат поездки по стране в Соллаль

По данным министерства сухопутных территорий и транспорта, 27 млн 800 тыс. южнокорейцев совершат поездки по стране в выходные дни по случаю праздника Нового года по лунному календарю Соллаль. С 13 по 18 февраля объявлен особый период контроля за транспортной ситуацией, в течение которого будут внедрены комплексные меры по регулированию дорожного движения и обеспечению безопасности. По предварительной оценке, в праздничный период ожидаются в среднем 8 млн 340 тыс. автомобильных поездок в сутки. Общее число путешественников, как ожидается, сократится на 13,3% по сравнению с прошлым годом из-за более короткого праздничного периода, но среднесуточный трафик будет на 9,3% выше. Для обеспечения бесперебойного и безопасного передвижения будут введены дополнительные меры, такие как освобождение от платы за проезд по скоростным автомагистралям и продление работы зон отдыха.

Песня Golden на пятом месте в Billboard Hot 100

Песня Golden – оригинальный саундтрек к мультфильму Netflix под названием K-pop Demon Hunters (Кейпоп-охотники на демонов) – 10 февраля опустилась с четвёртого на пятое место в чарте Billboard Hot 100. Golden находится в чарте 33 недели подряд. How It's Done, ещё одна песня из того же саундтрека, заняла 85-е место. В альбомном чарте Billboard 200 саундтрек Golden занимает шестое место.

RKI

В Южной Корее почтили подвиг российских моряков "Варяга" и "Корейца"

В южнокорейском Инчхоне 9 февраля на площади Санкт-Петербурга состоялась памятная церемония у монумента русским морякам, приуроченная к годовщине подвига крейсера "Варяг" и канонерской лодки "Кореец".

Цветы к памятнику возложили посол России в Республике Корея Г. В. Зиновьев, военный, военно-воздушный и военно-морской атташе полковник Н. Н. Марченко, Торговый представитель России А. А. Сапетко, сотрудники российских загранучреждений, соотечественники, а также учащиеся школы при посольстве и Лицея им. М.В. Ломоносова. В память о погибших моряках в море был спущен венок.



Фото: Посольство РФ в Южной Корее

Выступая перед собравшимися, посол Г. В. Зиновьев подчеркнул, что подвиг русских моряков является свидетельством неразрывной связи истории России и Кореи. Он напомнил, что вскоре после окончания Русско-японской войны Корея утратила независимость, а борьба корейских патриотов с японской оккупацией увенчалась успехом после разгрома Японии во Второй мировой войне при решающем вкладе Советского Союза. Дипломат также отметил, что сегодня российские военнослужащие вновь защищают рубежи страны, отстаивая ее суверенитет и безопасность, и поблагодарил власти Инчхона за содействие в сохранении памяти о героях.

(Олег Кирьянов, РК)

КНДР проведет IX съезд Трудовой партии в конце февраля

IX съезд Трудовой партии Кореи, который должен определить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й курс КНДР на ближайшие пять лет, откроется в конце февраля 2026 года в Пхеньяне. Об этом сообщило Центральное телеграфное агентство Кореи (ЦТАК).

Как говорится в заявлении ЦТАК, решение было принято на 27-м заседании Политбюро ЦК партии восьмого созыва, состоявшемся 7 февраля под руководством лидера КНДР Ким Чен Ына. Как подчеркнуло ЦТАК, решение о созыве съезда в "столице революции Пхеньяне" было принято единогласно. Точная дата открытия пока не названа; предполагается, что съезд начнется после празднования дня рождения Ким Чен Ира 16 февраля.

На заседании Политбюро также были утверждены вопросы, связанные с подготовкой съезда: проверка полномочий делегатов, формирование президиума и секретариата, а также проекты документов, которые будут вынесены на обсуждение. Ким Чен Ын положительно оценил работу подготовительного комитета и обозначил "принципиальные задачи" для успешного проведения форума.

К настоящему времени КНДР фактически завершила

отбор делегатов на съезд. В период с 28 января по 6 февраля прошли конференции партийных организаций в провинциях, министерствах и ведомствах, где были избраны представители на партийный форум. В системе КНДР, где партия руководит всеми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ми институтами, съезд является высшим органом принятия решений. Ожидается, что на IX съезде будет подведен итог пятилетней работы после VIII съезда 2021 года и объявлены ориентиры внутренней и внешней политики на следующий период.

В экспертных кругах не исключают обсуждение вопроса о восстановлении поста председателя государства по образцу времен Ким Ир Сена, хотя формальное решение в этом случае, вероятно, будет принято позднее на сессии Верховного народного собрания. В экономической сфере ожидается дальнейший акцент на политику самообеспечения и сокращение разрыва между городом и деревней. В преддверии съезда власти ускорят реализацию региональных проектов - в том числе строительство местных заводов, больниц и объектов обслуживания.

(Олег Кирьянов, РК)

В Южной Корее буддийские монастыри стали местом для знакомства молодежи

В Южной Корее уже давно существует туристический формат темпл-стэй (temple stay) - краткосрочные программы проживания в буддийских монастырях. Любый желающий может на несколько дней "примерить" жизнь монаха: подъем около 4 утра, утренние поклоны и молитвы, медитация, простая вегетарианская еда, участие в ритуалах и хозяйственных работах. Идея - не обращение в буддизм, а замедление, тишина и знакомство с традиционной духовной культурой Кореи.

Именно на этой практике вырос новый социальный проект крупнейшего буддийского ордена страны - Чоге. Его благотворительное крыло запустило программу "Нанын чолло" ("Я - по-своему"), превращающую храмовое пребывание в пространство для спокойных знакомств молодых людей.

В 2026 году орден впервые выводит проект за пределы Сеула. Как сообщила Корейская буддийская благотворительная ассоциация, участники проводят ночь в монастыре, проходят обычный ритм темпл-стэй, а параллельно участвуют в играх, совместных прогулках и

разговорах - без алкоголя, шума и ночных клубов.

Смысл прост: познакомиться в более человеческой и менее стрессовой атмосфере.

Старт тура намечен на 28-29 марта, а всего в этом году запланировано шесть выездов - в столичном регионе, на материке и на острове Чечжу, чтобы у жителей разных провинций были равные шансы на участие.

Программа была перезапущена в ноябре 2023 года с легкой ироничной отсылкой к популярному корейскому телешоу "Нанын солло" ("Я - одиночка"). Но если ТВ-шоу строится на драме и рейтингах, то храмовый формат делает ставку на искренность и спокойное общение.

Результаты оказались неожиданно впечатляющими. За 14 проведенных мероприятий поступило 11 368 заявок. 138 человек нашли пару, две пары уже поженились, еще две готовятся к свадьбе. По корейским меркам это высокий показатель для такого нетипичного формата знакомств - поэтому проект быстро приобрел репутацию "тихого, но работающего" способа найти партнера.

(Олег Кирьянов, РК)

Меняет название как перчатки

Сеул, 8 февраля – ИА РУСКОР. Главная оппозиционная партия Южной Кореи «Власть народа» (People Power Party, PPP) решила сменить название в следующем месяце в качестве символического шага, чтобы избавиться от своего имиджа перед местными выборами, до которых осталось менее пяти месяцев. Консервативная партия пребывает в смятении из-за последствий неудачной попытки бывшего президента Юн Сок Ёля ввести военное положение. Решение о смене названия было объявлено на заседании высшего совета партии. Более 68 % проголосовали за пересмотр устава на фоне усилий партии по улучшению своего имиджа после введения военного положения. В следующем месяце партия планирует провести публичный конкурс на лучшее название для нее. Консервативный блок обычно ме-

няет название партии после крупных политических кризисов, включая импичмент, коррупционные скандалы или поражения на выборах. С момента основания Демократической либеральной партии в 1990 году она сменила название на «Партию новой Кореи» в 1996 году после заключения в тюрьму бывших президентов Чон Ду Хвана и Но Тхэ У, а в следующем году была переименована в «Великую национальную партию». В 2012 году партия сменила название на «Сэнури», а после импичмента бывшего президента Пак Кын Хе в 2017 году была переименована в «Свободу Корею». В 2020 году, перед всеобщими выборами, она получила название «Партия объединенного будущего». Партия получила свое нынешнее название всего через шесть месяцев после поражения на выборах.



2026년

병오년

	1월 (음력 11-12월)					2월 (음력 12-1월)					3월 (음력 1-2월)				
월	5 17	12 24	19 12.1	26 8		2 15	9 22	16 29	23 7		2 14	9 21	16 28	23 5	30 12
화	6 18	13 25	20 2	27 9		3 16	10 23	17 1.1	24 8		3 15	10 22	17 29	24 6	31 13
수	7 19	14 26	21 3	28 10		4 17	11 24	18 2	25 9		4 16	11 23	18 30	25 7	
목	1 11.13.	8 20	15 27	22 4	29 11	5 18	12 25	19 3	26 10		5 17	12 24	19 2.1	26 8	
금	2 14	9 21	16 28	23 5	30 12	6 19	13 26	20 4	27 11		6 18	13 25	20 2	27 9	
토	3 15	10 22	17 29	24 6	31 13	7 20	14 27	21 5	28 12		7 19	14 26	21 3	28 10	
일	4 16	11 23	18 30	25 7		1 12.14	8 21	15 28	22 6		1 1.13	8 20	15 27	22 4	29 11
	4월 (음력 2-3월)					5월 (음력 3-4월)					6월 (음력 4-5월)				
월	6 19	13 26	20 4	27 11		4 18	11 25	18 2	25 9		1 4.16	8 23	15 5.1	22 8	29 15
화	7 20	14 27	21 5	28 12		5 19	12 26	19 3	26 10		2 17	9 24	16 2	23 9	30 16
수	1 2.14	8 21	15 28	22 6	29 13	6 20	13 27	20 4	27 11		3 18	10 25	17 3	24 10	
목	2 15	9 22	16 29	23 7	30 14	7 21	14 28	21 5	28 12		4 19	11 26	18 4	25 11	
금	3 16	10 23	17 3.1	24 8		1 3.15	8 22	15 29	22 6	29 13	5 20	12 27	19 5	26 12	
토	4 17	11 24	18 2	25 9		2 16	9 23	16 30	23 7	30 14	6 21	13 28	20 6	27 13	
일	5 18	12 25	19 3	26 10		3 17	10 24	17 4.1	24 8	31 15	7 22	14 29	21 7	28 14	
	7월 (음력 5-6월)					8월 (음력 6-7월)					9월 (음력 7-8월)				
월	6 22	13 29	20 7	27 14		3 21	10 28	17 5	24 12	31 19		7 26	14 4	21 11	28 18
화	7 23	14 6.1	21 8	28 15		4 22	11 29	18 6	25 13		1 7.20	8 27	15 5	22 12	29 19
수	1 5.17	8 24	15 2	22 9	29 16	5 23	12 30	19 7	26 14		2 21	9 28	16 6	23 13	30 20
목	2 18	9 25	16 3	23 10	30 17	6 24	13 7.1	20 8	27 15		3 22	10 29	17 7	24 14	
금	3 19	10 26	17 4	24 11	31 18	7 25	14 2	21 9	28 16		4 23	11 8.1	18 8	25 15	
토	4 20	11 27	18 5	25 12		1 6.19	8 26	15 3	22 10	29 17	5 24	12 2	19 9	26 16	
일	5 21	12 28	19 6	26 13		2 20	9 27	16 4	23 11	30 18	6 25	13 3	20 10	27 17	
	10월 (음력 8-9월)					11월 (음력 9-10월)					12월 (음력 10-11월)				
월	5 25	12 2	19 9	26 16		2 23	9 10.1	16 8	23 15	30 22		7 29	14 6	21 13	28 20
화	6 26	13 3	20 10	27 17		3 24	10 2	17 9	24 16		1 10.23	8 30	15 7	22 14	29 21
수	7 27	14 4	21 11	28 18		4 25	11 3	18 10	25 17		2 24	9 11.1	16 8	23 15	30 22
목	1 8.21	8 28	15 5	22 12	29 19	5 26	12 4	19 11	26 18		3 25	10 2	17 9	24 16	31 23
금	2 22	9 29	16 6	23 13	30 20	6 27	13 5	20 12	27 19		4 26	11 3	18 10	25 17	
토	3 23	10 30	17 7	24 14	31 21	7 28	14 6	21 13	28 20		5 27	12 4	19 11	26 18	
일	4 24	11 9.1	18 8	25 15		1 9.22	8 29	15 7	22 14	29 21	6 28	13 5	20 12	27 19	

- 음력설 2.17
- 한식 4.4
- 단오 6.19
- 초복 7.15
- 중복 7.25
- 말복 8.14
- 추석 9.25
- 성탄절 12.25

절기	소	대	입	우	경	춘	청	곡	입	소	망	하	소	대	입	처	백	추	한	상	입	소	대	동	
(양력)	월	1	1	2	2	3	3	4	4	5	5	6	6	7	7	8	8	9	9	10	10	11	11	12	12
	일	5	20	4	19	5	20	5	20	5	21	6	21	7	23	7	23	7	23	8	23	7	22	7	22



"정착의 문턱에서 겪는 어려움, 정부가 잘 챙길 것"

재외동포청장, 인천 거주 고려인동포 만나 현장 목소리 청취

재외동포청(청장 김경협)은 2월 5일(목), 인천 함박마을에 자리한 대한고려인협회 사무실에서 국내 체류 고려인동포를 대상으로 현장 간담회를 열고, 체류와 정착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과 건의사항을 직접 청취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주 열린 국내 체류 중국동포 간담회(1.29)에 이어 마련한 현장 소통 일정의 일환으로, 국내 체류 동포들이 겪는 정착 과정의 문제를 직접 듣고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추진됐다.

간담회에는 인천 지역 고려인동포 대표와 고려인 지원 단체 관계자를 비롯해 학생, 청년, 교사 등 다양한 참석자들이 함께 했으며, ▲ 체류자격 및 행정 절차의 어려움, ▲ 주거 및 초기 생계부담, ▲ 자녀교육과 언어 적응 문제, ▲ 취업 및 직업 훈련 연계 필요성 등 지역사회 정착 전반에 걸친 현실적인 애로사항이 폭넓게 제기됐다.

재외동포청은 그간 재외동포 정책이 해외 동포 지원에 상대적으로 집중되어왔다는 점을 고려해, '26년 1월 국내로 귀환하거나 체류하는 동포의 정착 지원을 전담하는 '귀환동포정착지원과'를 신설하고, 체류·생

활·교육·취업·지역 정착을 연계한 종합 지원 체계를 단계적으로 구축하고있다.

김경협 청장은 "지난주 중국동포 간담회와 오늘 고려인동포 간담회를 통해, 국내 체류 동포들이 공통적으로 언어·취업·정착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며, "정부는 특히 고려인 청년들이 언어 장벽과 정보 부족으로 역량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 대해 책임감을 가지고 타개해나갈 것이다"고 밝혔다.

이어 ▲ 고려인 청년 대상 한국어·기초 역량 맞춤형 교육 연계, ▲ 학업·직업교육·취업으로 이어지는 인재 육성 지원, ▲ 지자체 및 관계 부처와의 협력을 통한 정착 지원 강화 등 정착 지원 방향을 설명했다.

재외동포청은 이번 인천지역 간담회에 이어 광주 지역 고려인동포를 대상으로 한 간담회도 개최할 예정이다며, 동포들의 현장 목소리가 실제 정책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계 부처 및 지자체와의 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재외동포청 제공)

재외동포청, 광주서 '고려인과 함께하는 설날'

중국동포·인천 고려인 간담회 이어 국내 귀환 동포 현장 소통행보 지속 및 지자체 협력 강화

재외동포청(청장 김경협)은 설 명절을 맞아 2월 11일(수), 광주광역시고려인 마을을 방문해 고려인 동포들과 직접 만나 이야기를 나누고, 생활환경을 살폈다.

이번 방문은 앞서 개최된 국내 중국동포 간담회와 인천지역 고려인 동포 간담회에 이어 마련된 현장 소통 일정으로, 국내에 체류하며 생활 기반을 다져가는 동포들이 실제로 겪고 있는 어려움을 듣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자리였다.

김경협 청장은 간담회에 앞서, 설을 모국에서 맞이하는 고려인 동포들을 위해 협약기관인 예금보험공사와 함께 준비한 쌀 등 농산물 세트를 전달했다. 이어 고려인마을 내 한국어 교육 현장, 의료지원 시설, 공동체 공간 등을 차례로 둘러보며 생활 여건과 지원 상황을 직접 확인했다.

또한 의상체험실에서 고려인 전통 의상을 입어보고, 고려인문화관을 방문하는 등 문화를 매개로 동포들과 자연스럽게 소통하는 시간도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광주광역시 고광완 행정부시장 등 지자체 관계자들도 함께 참석해, 고려인 동포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어떤 방식으로 협력할 수 있을지 의견을 나눴다. 이를 통해 고려인 동포 지원이 개별 기관의 역할에 그치지 않고, 지역 행정과 연계된 지속가능한 정착 정책으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김경협 청장은 광주는 중앙아시아 출신 고려인 동포뿐만 아니라,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입국한 고려인 난민까지 포용해 온 지역이라는 점에서, 인도적 연대와 지역 공동체의 역할을 높이 평가했다.

이어 "고려인 동포는 단순한 지원 대상이 아니라,



이미 지역사회와 함께 살아가는 이웃이자 구성원"이라며 "국내 귀환 동포 정책은 체류 관리에 머무르지 않고, 생활·교육·취업·지역 정착까지 함께 고려하는 방향으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를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정책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지자체와의 긴밀한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고려인마을 운영, 의료지원, 언어·문화 적응, 청년 인재 활용 문제와 관련해 "지역의 헌신과 자발성에만 의존하는 구조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며, "재외동포청은 광주광역시와 광산구 등 지자체와 협력해 지역 기반의 정착 지원 체계를 보다 안정적으로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재외동포청은 이번 광주 방문을 계기로, 중국동포·고려인동포 등 국내 귀환 동포에 대한 현장 중심 정책 기초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지자체와의 협업을 통해 지역 특성에 맞는 정착 지원 모델을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재외동포청 제공)

[동포의 창] 다카하라·유라·박승의...세 개의 이름에 국적도 6번 바뀌다

파주사할린영주귀국자협회장 "사할린 한인의 이산은 아직 진행형" "50년간 잊었지만 정체성 지켜와... 한인 후손 영주귀국길 열어줘야"

(3면의 계속)

1942년 사할린에서 출생한 박 회장은 일본의 2차대전 패망 전까지 다카하시 가즈요시로 불렸고, 소련의 남사할린 점령 후 보부 다카하라 유리라는 소련식 이름을 계속 써오다가 2009년 영주귀국해 대한민국 국적을 회복하면서 본래 부모가 지어준 '박승의'라는 이름을 되찾았다.

그의 국적은 이름보다 더 파란만장하다. 일제강점기 일본인이었다가 전후 소련시대에 무국적자로 지냈다. 당시 대부분 전라도·경상도에서 강제징용돼 사할린에 남겨졌던 한인들은 언젠가 귀국하기 위해서 무국적자로서 각종 차별을 받으면서도 소련 공민증을 취득하지 않았다.

그러다가 북한 공관이 들어오면서 김일성대학 입학 등 배움의 길을 터준다는 설득과 남한과 조금이라도 가까운 곳으로 가려는 마음에 북한 국적을 취득했으나 북한에 갔다가 탈출한 이들을 통해 통제된 독재국가라는 사실을 알고 유학을 포기했다.

이후 소련 국적을 취득했다가 다시 러시아 국적으로 바뀌었고, 2009년 영주귀국 후 한국인이 됐다.

박 회장은 "아버지는 1977년 돌아가시기 전까지 전북 무주의 고향을 그리워했고, 기회가 되면 꼭 고국에 가라고 유언을 남기셨다"며 "영주귀국해 국적을 찾는 일은 아버지의 염원을 이뤄드리면서 동시에 내 정체성을 확립하는 일이라서 무척 감격스러웠다"고 술회했다.

그의 가족사는 마치 한국 근현대사의 비극과 닮았다. 그의 고모는 일제강점기 시골서 돈 벌러 대처로 나갔다가 행방 불명된 남편으로 인해 시부모와 자녀 등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했다. 당시 일본에 취업하면 돈을 더 벌 수 있다는 말에 자녀 중 하나만 데리고 일본행을 택했다. 그러나 이는 취업 사기로 그가 배에서 내린 곳은 사할린 남쪽 항구였고, 당시 징용돼 사할린에서 일하던 한인 노동자들에게 강제로 시집을 가게 됐다.

박 회장의 아버지는 누이를 찾아 10대에 사할린에 갔다가 다시 돌아와 장가를 갔으나 1939년 강제징용으로 사할린에 다시 끌려왔고, 몇 달 후 어머니는 어쩔 수 없이 남편을 따라 건너왔는데 그제 고향과의 영영 이별이 됐다.

2차대전 패전 후 최남단 항구인 코르사코프에서 조선으로 돌아가는 배를 타려고 그도 부모의 손을 잡고 왔으나 모든 배는 일본인만을 태웠고, 결국 다시 거처로 돌아와야 했다.

그는 "고국에서 우리를 태워 갈 배를 기다리다 지치고 절망해 바닷가로 뛰어들어 자살한 이들도 있었고, 소련 치하에서 무국적자이다 보니 제대로 된 취업도 못 했고, 모스크바국립대 진학을 꿈꿨지만 거절당하는 등 어려움이



문산도서관의 '세 개의 이름, 하나의 삶' 전시회 [문산도서관 제공]

술하게 많았다"고 돌아봤다.

박 회장은 사할린국립사범대를 나와서 중학교 물리·수학 교사를 하다가 건강으로 스트레스가 적은 전자제품 수리기사로 20여년 지냈다.

1988년 서울올림픽으로 한국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사할린에 우리말을 배우려는 이들이 늘자 한글학교 교사를 시작했고, 1992년 친척의 도움으로 연세대 한국어학당 유학 후 1993년부터 영주귀국하기 전까지 사할린국립사범대 동양학부의 한국어 교수를 역임했다.

사할린에는 현재 3만여 명의 한인이 살고 있다. 동포 1세는 500여 명, 2세는 5천여 명, 부모가 생존한 2세는 1천 500여 명으로 추산된다.

박 회장은 "이들 중 일부는 스탈린의 강제이주로 중앙아시아로 이주했다가 돌아온 고려인과 1946~1950년 별목공 등으로 사할린에 파견해 왔다가 잔류한 북한 출신도 있다"며 "이들 모두 세월이 흘러 하나의 사할린 한인 공동체를 이루며 산다"고 설명했다.

한때 무국적자로 텃밭에서 채소를 키워 내다 팔며 생계를 잇고 자식 교육을 열심히 했던 1세대의 헌신 덕분에 한인들은 사할린에서 우수한 지역 공동체로 부상했다.

박 회장은 "근면 성실함으로 널리 알려진 사할린 한인들은 남사할린의 무역과 경제를 장악할 정도"라며 "사할린 최초의 5성급 호텔을 비롯해 건축·어업·산업의 주요 기업을 한인이 소유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가족사와 사할린 한인의 삶을 기록한 '박승의 나는 누구입니까'를 저술하기도 한 그는 여생을 사할린 한인사와 차세대 정체성 연구에 매진하고 있다.

박 회장은 "한인이라는 정체성이 강한 1~2세대와 달리 3세대부터는 연결 고리가 약해지고 있고 4세대 이후는 러시아인이라는 의식이 커지고 있어 이대로라면 한인사회가 사라지고 말 것"이라며 "사할린 한인사를 복원하고 차세대 정체성을 키우는 일은 궁극적으로 모국과 사할린 또는 러시아 간 교류가 튼튼해지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출처: 연합뉴스)

이 모 저 모

(2면의 계속)

사할린 국립대학교에 사할린 체육 사범교육의 역사 박물관 개관

사할린국립대학교에 사할린 지역 체육 사범교육 역사 박물관이 개관되었다. 개관식은 <체육 문화, 스포츠, 개인의 건강> 실용학술 콘퍼런스 후에 열렸다.

개관식에는 사할린주 스포츠부 차관을 비롯해 주두마 의원, 스포츠와 교육계의 원로와 지역 연맹 회장, 포트리 파슈코브 교수의 제자들이 참석했다.

전시관에는 사할린 체육교육사범학교 설립일인 1992년 5월 12일부터 체육교사와 사범들 인재양성의 역사를 담고 있다. 박물관은 체육교사 양성시스템을 개척한 교육학 박사이자 교수인 포트리 파슈코브의 오래된 개인소장품의 자료들로 구성되었다.

수년간 체육교육사범학교는 2천 명이 넘는 전문가들을 배출하고, 포트리 파슈코브 교수의 지도 아래 2개의 박사학위 논문과 준 박사학위 논문 11편이 발표되었으며, 400편 이상의 학술논문이 발표되었다. 사할린 스포츠학교의 학생들은 국제적 수준의 스포츠 전문가로, 올림픽 경기의 참가자들로, 70명 이상이 러시아 스포츠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고, 3명은 러시아 연방 공훈 사범이다.

파슈코브 교수는 "이 박물관은 체육교육의 성과만 아니라 사범들이 창안한 길을 보여주고 있다."고 강조하며, 1990년 힘겨웠던 시기에 탄생한 체육교사 양성시스템의 역사는 시간이 흐르면서 지속적으로 안정된 인재양성의 모델로 자리를 잡았다.

이 박물관은 무엇을 초석으로 대학생들이 자신의 전문성을 구축해갈지 이해하도록 도움을 줄 것이라고 파슈코브 교수는 힘주어 말했다.

체육 사범교육 박물관은 활기차고, 개방적인 공간으로 설계되어 있고, 전시관은 향후 세대 간의 연계를 유지하기 위해 학교 졸업생들과 재학생들의 수상과 상패들로 채워질 예정이다. 또한 박물관 개관은 대학생들의 한 부분이자 사할린 스포츠와 체육교육 역사의 보전을 위한 새로운 단계가 되었다.

В СахГУ появился музей истории физкультурно-педагогического образования Сахалина

В Сахалинском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м университете открылся музей истории физкультурно-педагогического образования на острове. Церемония прошла после научно-практической конференции «Физическая культура, спорт и здоровье личности».

На открытие пришли заместитель министра спорт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депутат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думы, ветераны спорта и педагоги, руководители региональных федераций, а также ученики профессора Петра Пасюкова. Музей разместили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на улице Ленина, 296, в кабинете 212.

Экспозиция охватывает историю подготовки тренеров и преподавателей физкультуры с 12 мая 1992 года — даты основания высшей школы физкультурно-педагогических кадров на Сахалине. Основу музея составили материалы из личного архива доктора педагогических наук, профессора Петра Пасюкова, который стоял у истоков этой системы.

За годы работы школы подготовили более двух тысяч специалистов. Под научным руководством Петра Пасюкова защитили две докторские и 11 кандидатских диссертаций, опубликовали свыше 400 научных работ. Воспитанники сахалинских спортивных школ стали мастерами спорта международного класса, участниками Олимпийских игр, более 70 человек — мастерами спорта России и трое — заслуженными тренерами РФ.

Профессор Пасюков отметил, что музей показывает не только достижения, но и путь их создания. По его словам, это история системы, которая появилась в непростые 1990-е годы и со временем стала устойчивой моделью подготовки кадров. Он подчеркнул, что музей помогает студентам понять, на каком фундаменте они строят свою профессию.

Музей задумывали как живое и открытое пространство. Экспозицию планируют пополнять наградами и материалами выпускников и студентов, чтобы сохранить связь между поколениями.

Открытие музея стало важной частью университетской жизни и новым шагом в сохранении истории сахалинского спорта и педагогики.

<2026-사할린 얼음> 얼음낚시대회, 참가신청 시작

제 15회 기념 <사할린 얼음> 겨울 아마추어 낚시대회가 사할린 주민들과 지역 방문객들을 대상으로 나이바 강에서 개최되는 가운데 현재 참가신청을 접수하고 있다.

이번 <사할린 얼음> 겨울 낚시축제에 300여 팀이 참가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참가신청은 주최 측이 필요한 참가 희망자의 수가 채워질 때까지 이번 주와 다음 주에도 계속 받는다.

경기는 단체별과 개인별 두 단계로 진행되며, 첫 단계는 4인조로 구성된 단체 경기와 2단계는 남녀 개인별 경기가 진행된다. 이날 관람객들을 위한 다양한 경연과 경기도 펼쳐질 예정이다.

Регистрация на «Сахалинский лед — 2026» стартовала для любителей подледной рыбалки

XV юбилейный фестиваль любительской зимней рыбалки «Сахалинский лед» пройдет 21 февраля на реке Найба как для сахалинцев, так и для гостей региона. Заявки на участие уже принимают.

Планируется, что в фестивале «Сахалинский лед» примут участие 300 команд. Регистрация будет продолжаться в течение этой и следующей недели, пока организаторы не соберут нужное количество желающих.

Состязания пройдут в два этапа: командный и индивидуальный. Первый этап — отборочный, в нем участвуют команды из четырех человек. Второй этап пройдет в индивидуальном зачете отдельно для женщин и мужчин.

Для зрителей пройдут разные конкурсы и соревнования.

(러시아 및 사할린주 언론기관 자료에서)

СТОМАТОЛОГИЧЕСКАЯ КЛИНИКА "РАДИКС"

Сделай свою улыбку красивой!!!



Тел.: 50-00-50; 43-31-31

Реклама

Продолжается подписка на 2026 год

Подпишись на газету "Сэ корё синмун"! Поддержи национальную газету!

Свежие, эксклюзивные и достоверные новости и публикации из жизни корейского сообщества Сахалина, а также новости из Южной и Северной Кореи. Стоимость подписки на 1 месяц — 147 руб. 66 коп. Индекс газеты: ПР575 Газету можно выписать во всех отделениях связи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Поможем "Сэ корё синмун"

Пожертвования просим отправлять на расчетный счет: 40703810750340000024 в Дальневосточном банке ОАО "Сбербанк России" г. Хабаровск. Корр.счет: 3010181060000000608 БИК: 040813608 Получатель: АНО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ИНН 6501011406, КПП 650101001. Назначение платежа: пожертвование.

МЕБЕЛЬНАЯ ФАБРИКА 1+2 КУПИ ДИВАН - ПОЛУЧИ ПОДАРОК!

ул. Украинская, 58, тел.: 77-77-00

광고-광고

새고려 신문사는 독자 여러분이 신문에 실고자 하시는 광고나 생일 또는 여러 축하문을 접수합니다.

접수 방법은 전화: 43-59-80, 43-72-94. 이메일 : vika131065@mail.ru, skr@sakhalin.ru 로 연락 바랍니다.

<p>Редакция не несет ответственности за содержание объявлений и рекламных материалов. Рукописи не рецензируются и не возвращаются. Мнение редакции не всегда совпадает с мнением авторов.</p>				<p>광고의 내용에 대해서 신문사가 책임을 지지 않음.</p>	
<p>Издатель: АНО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Новая корейская газета)</p> <p>Гл. редактор Бя В.И. Сазанг (주필) 배 워토리아</p>	<p>Учредители газеты: автономная некоммерческая организация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Правительств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p>	<p>Адрес издателя и редакции: 693020 г.Южно-Сахалинск, ул. Чехова, 37 Телефон/факс: 43-59-80, 43-72-94, 43-67-85 E-mail: skr@sakhalin.ru http://cafe.naver.com/sekoreasinmun.</p>	<p>Отпечатано в АО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ная типография», ул. Дзержинского, 34 Время подписания в печать: По графику - четверг 18-00 Фактически - четверг 23.30</p>	<p>Издаётся с 1 июня 1949 года. Выходит по пятницам 50 раз в год. Индекс ПР575 Тираж 1100 экз.</p>	<p>Газета зарегистрирована Управлением Федеральной службы по надзору в сфере связи, информационных технологий и массовых коммуникаций п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Свидетельство о регистрации СМИ ПИ № ТУ65-096 от 22 сентября 2011 г.</p>